

삼성전자,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 디스플레이 입성

삼성전자가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42인치 PDP TV 300여대를 공급하며 칠레에서 한국산 가전 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칠레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산티아고市 국제공항에 삼성전자 42인치 PDP 디스플레이가 선정된 것은 삼성전자의 높아진 브랜드 위상과 함께 한-칠레 FTA 체결 후, 무관세가 됨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성전자는 칠레에서 FTA 체결 후, 기존 6%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휴대폰, 캠코더 부문에서 25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며 칠레 시장서 캠코더 1위, 휴대폰 2위로 도약했다.

가전 부분에서도 삼성전자는 다양한 마케팅·옥외 광고로 컬러TV·콤팩

보DVD플레이어·모니터·양문형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총 8개 품목에서 현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칠레에서 지난 연말 칠레 입양아 복지재단인 '샌 조세 재단(San Jose Foundation)' 연말 기부금 파티에 제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칠레 산티아고 시내 최대번화가에서 대형 빌딩 광고판 설치를 통해 삼성전자 브랜드를 적극 알리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슬림TV 월 1만 대 판매 돌파	2005.04.07
2	삼성전자, 아태지역 최고 IR기업 선정	2005.04.05
3	삼성전자, 컴퓨터도 웰빙 시대	2005.03.31
4	삼성전자, 미 휴대전화 시장 2위	2005.03.30
5	디지털TV로 예술작품 만끽한다	2005.03.28
6	삼성전자, 아시아축구연맹(AFC) 후원	2005.03.26
7	산학협력 공동 연구센터 운영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005.03.25
8	삼성전자, 제2회 모바일 솔루션 국제 포럼 개최	2005.03.23
9	삼성전자, 경영투명성 최고 기업 선정	2005.03.22
10	삼성전자 홈네트워크 기술, 미표준 추가 채택	2005.03.19
11	삼성전자, 색약도 생생한 화면을	2005.03.17

LG전자, 브라질서 최대 유통업체와 대규모 공급 체결

LG전자가 지난해 브라질 전자, 통신분야 1위 기업 달성에 이어 올해 중남미 전자, 통신분야 1위 기업 달성을 목표로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8억불을 달성한 LG전자는 올해 'SAMBA 1100' (매출 11억불)으로 매출목표를 대폭 상향해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LG전자는 브라질 최대의 도매, 유통업체인 마르틴스(Martins)사와 TMM (Top Management Meeting)을 갖고, 올해 1억 헤알(약 3,600만불)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마르틴스(Martins)사는 4,600 개의 판매대리점을 운영, 전국적으로 20,000 개의 중소 매장에 물건을 공급하며 10억 헤알(약 3억6천만불) 규모의 브라질 도매시장의 75%를 장악

하고 있는 최대 유통업체이다.

이로써 LG전자는 브라질 도매업체 1위 마르틴스(Martins)사와 "Win-Win" 협력을 통해 TV, 모니터, DVD제품군 등 대량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대도시 대형 유통에서 중, 소 도시까지 시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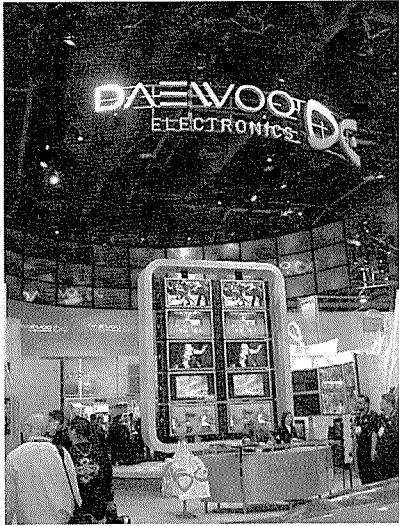
LG전자는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의 핵심 생산기지로써 입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Top Management Meeting을 통해 브라질 및 중남미 1위 전자통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세대와 '4세대 이동통신' 산학협력 MOU 체결	2005.03.31
2	LG전자 미 자회사 Zenith사, 알 미쓰비시, 사프와...	2005.03.29
3	LG전자, 뮤직폰 200만대 돌파 기념...	2005.03.29
4	LG전자, 경영진에 첫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	2005.03.23
5	LG전자, 영국 명문 프로축구단 '리버풀FC' 공식...	2005.03.21
6	LG전자 김병수 부회장, CNBC에 경영철학 소개	2005.03.21
7	LG전자, PDP TV 대중화시대 연다	2005.03.18
8	LG전자, 멕시코 시장공략 강화	2005.03.16
9	LG전자, 세티즌 '명예의 전당' 등극, 기념 이벤트...	2005.03.15
10	LG 평판TV, 세계적 디자인상 석권	2005.03.14
11	LG전자, 중동서 '사랑의 무료식'	2005.03.14

대우일렉트로닉스, 북미 시장 '노크'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와인냉장고와 로봇청소기를 개발, 국내시장에 앞서 북미시장에 먼저 시판한다고 밝혔다.

와인냉장고와 로봇청소기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처음 개발한 것으로 와인냉장고는 14병, 34병, 52병을 보관할 수 있는 3모델이, 로봇청소기는 1 모델이 연내 출시될 계획이다. 로봇청소기는 타사 모델 대비 10~15% 정도 소음이 적고 먼지통 용량이 30% 이상 커진 것이 특징이라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설명하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백색가전 전시회 '2005 IHS(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에서 새로 개발한 와인냉장고와 로봇청소기, 피자오븐, 세라믹 전자레인지 등을 선보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제품들 중 피자오븐과 세라믹 전자레인지는 상반기 중에 먼저 수출하고 와인냉장고와 로봇청소기는 하반기 출시가 목표"라며 밝혔다.

삼성SDI, 김철홍 과장 세계 유명 과학자 2천인 선정

삼성SDI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정보기관인 영국의 국제 인명센터(IBC)가 발행할 예정인 <21세기 세계 유명 과학자 2,000인>에 PDP 개발팀의 김철홍(33세) 과장이 선정됐다고 3월 15일 밝혔다.

IBC와 같은 세계 인명사전에는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놓은 40~50대의 교수나 학자들이 주로 게재되나 30대 초반의 연구원이, 또 국내 및 해외를 통틀어 디스플레이 업계 연구원이 등재되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김철홍 과장은 현재 삼성SDI PDP 개발팀에서 PDP에 사용되는 소재 및 재료를 개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노선(Nano Wire) 합성에 관한 연구개발로 나노분야 응용기술을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만 33세에 불과한 김 과장이 순수·응용과학 분야 주목받는 과학자에 선정됨으로써 한국산 PDP 제품의 위상 제고는 물론, 현재 PDP 업계에서 최고의 경쟁을 갖추고 있는 삼성SDI 연구진의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김 과장은 『세계 인명사전 등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PDP가 디지털 시대의 최적의 디스플레이임을 반드시 입증시키겠다』고 선정 소감을 말하였다.

이레전자, DMB수신 PMP제품 개발 착수

이레전자가 DMB 수신용 PMP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레전자는 DMB 방송수신을 위한

PMP 제품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전자부품연구원 DMB 수신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참여업체로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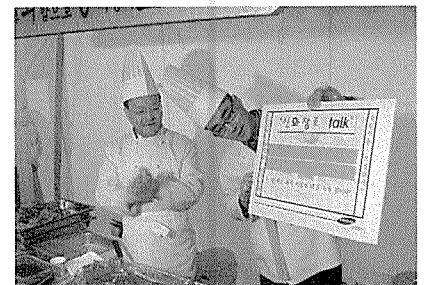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레전자는 DMB 수신기 개발지원센터의 수신기 테스트용 장비, 이동수신 테스트용 차량 및 장비활용과 참가업체들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DMB 수신기능의 PMP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DMB수신용 PMP 제품의 조기 개발을 통해 하반기 국내 지상파 DMB방송의 본격화에 따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DMB 수신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레전자는 이번 DMB 수신기 개발지원센터의 참여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 DMB 수신 PMP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DMB 수신기 개발지원센터의 참여업체는 DMB 수신기 제조사, 미들웨어, 칩셋업체 등 현재 모두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기, '신화창조 포장마차'로 열린 경영 효과 만점



삼성전기가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하던 기존 간담회 형식을 탈피해 임

직원간 자유로운 만남을 유도하는 "신화창조 포장마차"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기는 "신화창조 포장마차"가 "신뢰와 화합으로 창의성이 조성되는 포장마차"의 줄임말로써, "어려운 주위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간 신뢰와 화합의 밑바탕이 되어 회사 경영에 있어 신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화창조 토크"라는 이색적인 코너가 진행되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대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0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이것만은 바꿔 봅시다", "일에 대한 열정은 이럴 때 생기던데요", "현재의 위기 이렇게 하면 극복 됩니다" 등 세가지 질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EST 3를 선정, 한 가지씩 차트에 있는 결과를 공개하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북돋웠다.

"신화창조 포장마차"는 그룹장급 이상 간부의 주제로 12명~1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일 일과 후 2시간 동안 오픈 한다.

팬택, 이성규사장 독일에 유럽 본사 5월 설립

팬택계열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올해 3분기까지 동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G)폰을 유럽에 공급하는 등 유럽형 이동통신(GSM) 본고장인 유럽시장 공략을 통해 '빅5' 업체로 조기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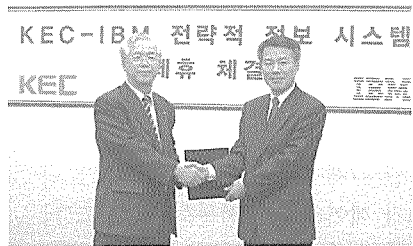
이성규 팬택 사장은 3월13일(현지 시간) 독일 하노버 세빛 2005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까지 500만달러를 투입해 팬택 유럽본사

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유럽시장에 동영상 통화가 가능한 3G 단말기를 '팬택(PANTECH)' 독자 브랜드로 공급해 차세대 단말기 경쟁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팬택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5개 국가를 관할하는 유럽법인장에 전현수 해외영업본부장을 내정했으며 동유럽과 CIS 국가에 대해 오스트리아 빈 에 설립한 지사를 바탕으로 영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유럽 휴대폰 시장은 2세대에서 3세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며 "현재 2~3개 유럽 통신사업자와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쯤이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KEC, 한국IBM과 10년간 아웃소싱 계약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전문회사인 KEC와 한국IBM(대표 이휘성)은 향후 10년간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계약에 따라 KEC는 향후 10년간 서버, 네트워크, 데스크탑을 포함한 IT인프라스트럭처와 ERP시스템 등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관리를 한국IBM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KEC는 이번 한국IB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IBM이 보유하고 있는 반

도체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거점간 선진 정보시스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확보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BM의 전문 인력과 검증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정된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기적인 전산 투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IBM은 KEC의 ERP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버 및 네트워크를 24시간 무인 감시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 함으로써 IT 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EC가 핵심 비즈니스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G전선그룹, LS그룹'으로 새 출발

LG그룹에서 분리된 LG전선그룹이 LS'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완전한 독자그룹으로 거듭난다.



LG전선그룹은 3월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구자홍 회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I 선포식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룹 이름을 LS'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새 CI를 공개했다.

LS는 사업구조를 기존 장치(Device) 중심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뜻에서 리딩 솔루션(Leading Solution)을 상징하며, LG+GS'란 의미도 있다고 LG전선그룹은 설명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사업 중 하나인

광통신 사업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광케이블 생산 및 판매를 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통신장비 사업은 물론 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할 것이며,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였다.

새 로고의 화살표 모양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강한 의지와 새 패러다임을 여는 무한 성장을 나타내고, 적색과 청색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및 투명성과 건실함을, 부드러운 선은 고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고 말하였다.

LS는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그룹 사명으로 공식 사용되고 그룹 주력사로 회사명에 LG가 포함된 LG전선, LG산전, LG니꼬동제련도 이름을 각각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으로 바꾸었다.

나머지 계열사도 각자 판단에 따라 LS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LS를 쓰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수페타시스 5월부터 내장형 인쇄기판 양산

이수그룹 계열사인 이수페타시스(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가 오는 5월부터 차세대 PCB로 주목받고 있는 내장형 PCB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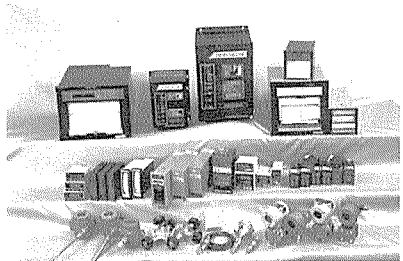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이수페타시스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근 미국 '산미나 SCI'와 PCB의 수동부품 내장공법인 'ZBC-2000'에 관한 특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설비보완 및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이수페타시스가 양산하는 내장형 PCB는 커패시터(Capacitor-전기저장장치, 축전기)

라는 수동부품을 PCB안에 내장한 제품으로, 외장형에 비해 기판의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능동부품과의 최단거리 배선이 가능한 차세대 PCB이다.

이수페타시스 김용균 사장은 "양산초기에는 내장형 PCB를 MLB(고다층 PCB)중심으로 생산,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 위주로 마케팅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근 수요가 신장되고 있는 MP3폰, 디카폰과 같은 초소형 전자제품을 PCB 분야로 확대, PCB 시장의 선두업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코닉스, (주)오토닉스가 인수하여 경영정상화 시동



센서/제어기기 전문회사인 (주)오토닉스가 제어계측기 전문회사인 (주)코닉스를 인수하고 박환기 사장이 同社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유사 업종인 양시간 기술 개발, 생산, 영업, 인적 자원 교류 등 많은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주)코닉스는 1981년에 설립된 제어계측기 전문회사로서, 각종 기록계, 온도계, 압력계, 디지털 지시/경보계를 비롯, 35개 제품군에 총 500여종의 제

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온도 압력 분야의 국가 공인 교정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코닉스는, 2001년 이후 무리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2002년 10월 최종 부도 처리되어 2003년 10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년여의 자구노력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주)오토닉스가 인수함으로써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오토닉스의 박환기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 업계에 정평이 난 박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G삼보, 빅뱅 페스티벌 개최

삼보컴퓨터는 4월 4일 이번 한 달간 독도 사랑 BIG-BANG 이벤트, 루온 구매고객 사은행사, 인텔64비트 PC기념 사은행사, 특별 패키지 기획전 등을 포함한 TG삼보 BIG-BANG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독도 사랑 BIG-BANG 이벤트에서 PC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독도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일체형PC 루온올인원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다크를 증정한다.

또 인텔 64비트 CPU탑재 PC를 구입하면 5.1채널 홈시어터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주고 기획전을 통해서 99만원대의 와이드 노트북 등을 만나볼 수 있다.